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7시
오전 (2부) 7시 30분 7시
오전 (3부) 7시 30분 7시
오전 (4부) 7시 30분 7시
금요일예배 (1부) 8시 30분 7시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7시 30분
오전 (2부) 10시 10시
오전 (3부) 2시 2시
저녁예배 7시 30분 7시 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11월 3일 (제714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포기하지 말라

과테말라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미국의 애틀랜타를 경유해서 왔다. 거기 유하는 동안 우리는 한 골프하우스에 들렀는데, 거기에 놓인 작은 조각상들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팔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파는 것이 아니라며 그들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 말에 나는 “오늘은 안 된다지만, 내일은 될 수 있어. 내일 또 와보지.”라고 말했다. 일행들이 “아휴, 목사님. 자기 가게에 장식해놓은 것을 왜 팔겠어요? 내일 오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나는 다음 날 그 하우스에 또 갔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팔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분명 어제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흔쾌히 가져가란다. 그것도 아주 저렴한 10불, 15불에.

나는 일행에게 설명했다. “오늘 안 되는 것도 내일은 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는 매일 거절당했지만, 어제까지 안 된다던 재판관으로부터 승낙을 얻어냈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초창기 골퍼들이 쓰던 퍼터를 얻은 것이다. 나는 늘 이 퍼터를 갖기 원했다. 그런데 그것이 1940년 월슨사에서 한정 생산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100개 밖에 없는 터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무려 13년간을 찾았다. 그런데 이번 애틀랜타에 갔을 때, ‘조선옥’ 유 권사의 남편 장 집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며 선물로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포기하지 않으면 소원하는 것이나 꿈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말라.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중요하다

과테말라(Guatemala) 에스쿠인틀라(Escuintla) 주(州) 고메라(La Gomera) 집회 첫날,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 하더니 저녁에는 천둥,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 야외집회의 최대 복병인 날씨가 또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현장에 가보니 어두운 축주장엔 비만 쏟아지고 사람들은 비를 피해 관중석으로 올라가 있었다. 빗속을 뛰어다니며 준비하는 중, 순간 한 장면이 눈에 확 들어왔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의자에 엎드린 채 울며 기도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집회 안내를 담당하는 봉사요

목사님이 도착하자 일시적으로 비는 멈췄다. 그러나 설교 중에 다시 비가 쏟아졌다. 목사님은 ‘모두가 간절히 예수 부름에 합심하여 이 비를 멈춰 달라’고 기도하자고 역설하셨다. 모두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요동쳤고, 단으로 끌어올려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 성령의 역사가 이어졌다. 목사님은 예배를 마치며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 비를 멈춰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한 것을 분명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내일은 좋은 날씨 가운데 더 큰

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이 땅을 누리며 사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식에 억압되어 가난과 병과 고통 속에 찌들고 있습니까? 이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며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달라고 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악한 마귀에게 속았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되찾아야 합니다.”

고메라 시장은 이날의 강의에 크게 깨닫



과테말라 고메라(La Gomera) 시에 성령의 대역사가 나타났다

원 같은데 정말 가슴이 뭉클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저 눈물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밀려왔다. 그러나 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자꾸 전기가 나갔다.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였으면 모두가 모여 합심기도로 하늘 문을 두드렸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목사님께 배운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만이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임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에서 찬양하는 무리 따로, 우왕좌왕하는 무리 따로, 쏟아지는 비 앞에 모두가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일은 모두가 한 사람씩 전도하여 이 전을 채웁시다.”

이튿날, 정말 화창한 날씨로 무더웠다. 오전 세미나를 위해 목사님은 새벽부터 직접 세미나 장소를 정리하셨다. 환경이나 조건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기에 좋도록, 내가 활용하기에 좋도록 환경과 조건을 리모델링하는 것 또한 목사님이 늘 현장에서 강조하시고 실천하시는 대목이다.

고메라 시의 시장 부부와 데모크라시아(Democracia) 시의 시장, 그리고 두 도시의 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참석한 세미나가 속개되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며 살아야함을 강조하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들이 이 땅을 지옥

고 집에 돌아가 그동안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못한 자신이 바보였다고 많이 울었다고 고백하였다.

저녁 집회에는 잠깐 다시 비가 내리는 듯했으나 대세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미 합심기도에 응대하신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을 닫을 자는 없다. 성령의 대역사 가운데 30년 된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 병어리가 말하며 각종 병자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 목사님은 마지막 메시지로 방언기도를 쉬지 말라고 강조하셨다. 방언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만이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며 천국까지 안전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소경, 귀머거리, 병어리를 안수하시는 목사님



30년 된 소경이 눈을 뜨자 울며 기뻐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강조하시는 목사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12:1~7)

합심기도의 위력을 알자

말 한 마리는 통상 2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말 두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무려 24톤이 된다고 합니다. 합심의 위력입니다.

저는 합심기도도 이와 같은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기도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시너지(synergy)는 syn(함께)와 energy(에너지)의 합성어입니다. 즉 함께 만들어내는 상승효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촛불 하나 켜기라면, 합심기도는 촛불을 여러 개 켜는 것과 같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큰 함아리에 혼자 물을 채우느라 힘들고 오래 걸리는 것이라면, 합심기도는 여러 명이 단번에 물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합심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19-20).

실제로 성경에는 합심기도를 통해 무엇이든 구하여 얻은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해롯에게 잡혀 감옥에 있을 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행12:5). 그랬더니 베드로 앞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니 거기서도 여러 사람이 베드로를 위하여 합

7:6). 이때 불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미스바로 왔으나 하나님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뢰를 발사 불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합심기도의 능력은 에스더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에스더의 사촌 오라비인 모르드개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 조국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해 들어가면서 모르드개에게 부탁합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 위해 합심 기도

해립으로부터 국가적인 수치와 모욕을 당하자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궁내대신 엘리아김과 서기관 셀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를 입고 기도의 자리에 동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를 위기로부터 건졌으며, 히스기야를 모욕하던 산헤립은 비참한 종말을 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합심기도란 마음을 합하여 같은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로 기도의 동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철산리에서 목회하던 시절, 어느 가정

문제가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다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 때 더 나은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해 줄 것들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

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에4:16).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대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서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부림절을 맞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사십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왕을 비롯해 모든 백성들이 조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굵은 베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온3:5-6). 이 합심기도에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에 금식하고”(삼상

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오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 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롬15:30-32).

외줄보다 삼겹줄이 강하다

여러분, 제가 가정예배를 꼭 드리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면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인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 자녀들까지 합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물론이고, 무엇이든지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1+1=2’는 수학적인 계산입니다. 하나님은 ‘1+1=5’도 되게 하시고, ‘1+1=10’도 되게 하십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나라가 시끄러울 때 촛불집회 할 것이 아닙니다. 믿는 국민 모두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성회’를 연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네 탓이다 하지 말고, 가족 모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살 길이 생깁니다. 교회가 힘들 때 목사

와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는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한다’고 했고, ‘외줄보다 삼겹 줄이 강하다’(전4:12)고도 했습니다. 혼자 은밀히 하는 기도도 좋지만,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병 들었습니까? 가족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교구 식구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나아가 교회에 알려 함께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당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지금 당신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가?

심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행12:12).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령을 받기 위하여 합심기도 한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말타이와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이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히 기도해 힘쓰니라”(행1:13-14).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후에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사무엘과 더불어 금식하고 회개기도를 합심으로 드렸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에 금식하고”(삼상

다 해결된 대라는 소문이 나며 사람들이 교회로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단 위에 합심기도를 요청하는 편지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합심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

문입니다. 이번 과테말라 집회에 가기 전, 제가 납치당하는 꿈을 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합심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과테말라에서 우리 성도들이 금식하며 매일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람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과테말라 대통령의 아들들을 통해 250여 명의 경찰과 군인들이 저를 경호하며 호위했고, 그 도시의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저를 도와서 집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 여러분의 합심기도 덕분임을 압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합심기도를 부탁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

::객원칼럼::

권세자에게 입 맞추라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망할 것”이라 하셨다.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 예수님께 입 맞추는 것이 지혜 중의 지혜라는 것이다. 여기서 입 맞추라는 말씀은 육체적 입맞춤 이라기보다 그와 하나 되라는 뜻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말을 맞춰라, 같은 말을 해라, 세상 말로 하면 한 통속이 되라’는 것이다. 예수님과 혹은 단체장과, 주인이나 사장님과 한 통속이 되라는 말이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과 한 통속이셨다. 자신이 하신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대신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수차례 언급하셨다. 완전하게 하나님과 말을 맞추셨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구든지 원하던, 원치 않던 일정한 단체 속에 들어가 살게 된다. 이들 단체 속에는 조직이 형성되어 있고, 그 조직은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성경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한 조직 속에 위사람과 말을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다. 누군가 조직 속에서 딴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그 사람은 조직을 떠나든지 도태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대부분 위사람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으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조직 속에 또 다른 당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그 힘을 빌려 스스로없이 다른 말을 내뱉기 시작하다가 급기야는 배역하여 그 조직을 혼란케 하거나 아니면 그 무리들과 함께 조직을 떠난다. 루시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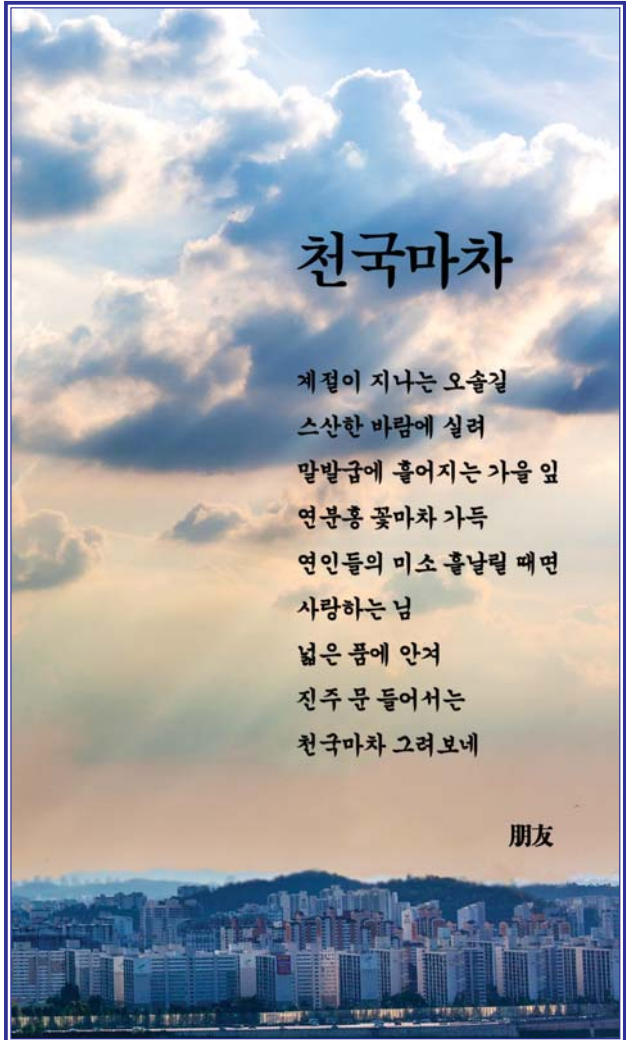
그랬다. 1/3이나 되는 동조자들의 힘을 빌려 하나님께 배역하려다 무리에서 쫓겨나 영원한 저주 속으로 들어갔다. 고라와 250명의 장로들도 모세를 향해 판소리 하며 배역하더니 땅이 삼키는 죽임을 당했다. 요즘 신문 기사를 보면 권세자와 입 맞추지 못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고통당하고 물러나는 경우들을 종종 본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본다. 미련한 자들은 상전을 욕하고 다닌다. 험담하고 판소리하고 다닌다. 교회에서도 미련한 목사, 성도를 본다. 그들은 누가 세운 줄 알고 자기 욕심에 끌려 갑자기 이상한 소리하고, 다른 말을 내고 다니다 결국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떠나간다. 어느 날, 한 전도사가 나를 찾아와 눈물을 툭툭 흘리며 내가 불쌍하단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성경해석이 절반정도가 잘못되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믿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원어를 몰라서 그런단다. 참 답답하던 차에 그 전도사가 교구 성도를 절반가량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수습하느라고 큰 고생을 했었다. 물론 그 전도사는 그 후 1년 조금 지나 망가졌고 지금은 목회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번 짚어보자. 지금 나는 내게 소속한 단체의 권세자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말을 하고 다니는지? 권세자에게 입 맞추라는 것이 지혜요, 교훈이다. 권세자와 한 통속이 되는 것이 지혜다.

이시대 목사

천국마차

계절이 지나는 오솔길
스산한 바람에 실려
말발굽에 흩어지는 가을 잎
연분홍 꽃마차 가득
연인들의 미소 흔들릴 때면
사랑하는 님
넓은 품에 안겨
진주 문 들어서는
천국마차 그려보네

朋友



::성경에세이::

눈 뜬 소경이 되지 말라

여보게!

얼마 전에 어느 기업의 CEO와 식사를 하려고 레스토랑에 갔었네. 큰 유리창이 있어 전망이 아주 좋은 곳이였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 유리창을 너무 잘 닦아서 우리가 투병했던지 비둘기가 날아와 그만 유리창에 부딪쳐 죽고 말았네. 미물이지만, 내 바로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더군.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생각이 깊었네. 비둘기가 유리를 보지 못한 것처럼,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고, 보이지 않는 위험도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지. 눈 뜬 소경이 되어서 빛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유리창에 부딪친 비둘기 신세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나더군.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자각이 일었기 때문이었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사43:8)’고 하셨네. 그것이 내가 할 일이거든.

여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이 세상에는 아주 많단다. 하나님도 계시고, 천군 천사도 있고, 악한 마귀와 악령, 귀신도 있단다.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고, 병들게 하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알게 되네. 요한계시록에는 귀신들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다고 했네(계20:8). 우리나라 동해 해변의 모래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전 세계 해변에 있는 모래알은 얼마나 많겠나? 그만큼 우리를 노리는 자가 많고, 그것들이 우리 앞에 쳐놓은 잘 닦여진 유리창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그것들은 우리가 유리 창 쪽으로 달려와 부딪쳐 쓰러지기를 바라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눈을 떠라’고 거듭 말씀하신 거라네. 그래야 유리를 피할 수 있거든. 곧 마귀와 악령, 그리고 귀신들의 계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들의 빛에 걸리지 않게 된단 말이지.

영의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그건 영의 사람이 되면 되네.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의 눈을 자연 갖게 되지. 영의 사람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는 거라네. 성령은 말 그대로 성스러운 영으로서 곧 하나

님이 영인데,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자연 영의 눈을 갖게 되는 거라네. 이해가 되는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은 아니라네. 세상 사람들은 개뿔발에 굴러도 이성이 낮다고 하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천국이 보이게 되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네.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영의 눈을 크게 떠서 악한 것들의 태클에 걸리지 않아야 하네. 그 악한 것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죽여도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영의 눈을 못 뜨게 하려고 난리야. 그래서 넘어지게 해놓고 ‘거봐, 하나님이 없지?’라고 하지. 그래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곧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영의 눈을 잃게 되고, 그 악한 것들의 사슬에 매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살게. 그래야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에 무사하게 가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상면할 수 있네. 어허! 자네 눈이 반쯤 감겼구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5:8).

朋友



귀를 기울이세요

마요네즈와 피클, 그리고 토마토케첩 등으로 전 세계를 석권한 하인즈(Hainz) 식품회사의 창시자 헨리 존 하인즈는 1919년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신의 어머니인 에너 마거레타 하인즈 여사를 기리기 위해 예배당을 건립하려는 유언을 자식들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단다. 그리하여 하인즈의 자녀들은 5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미국의 명문 대학인 피츠버그대학 캠퍼스 안에 자신들의 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한 대예배당을 완공하였고, 그 이름을 ‘하인즈 기념 예배당’이라고 불렀다. 그 이후 그림처럼 아름다운 대예배당은 지금도 피츠버그대학의 상징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당을 직접 가서 보면 그 어느 곳을 둘러봐도, 심지어는 교회 안내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길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목사가 있고 주일마다 예배가 드려지지만, 어느 모로 보아도 그 예배당은 이름 그대로 하인즈 가문을 기념하는 예배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과 좋은 시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객전도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골1:18). 크고 아름다운 성전과 좋은 시설, 많은 부와 권세는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의 이름이 높이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선석 전도사

blessedmc@naver.com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미운 걸 어떡해

요 몇 달간, 많이 미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직급은 한참 높는데 일 하기 싫어하고, 짜증 잘 내고, 권위의식까지 있어 여러 가지로 제가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 갖춘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은 저에게,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것을 한꺼번에 주었습니다. 이름하여, 사람 스트레스.

보통은 한 번씩 다 겪는다는 무능력한 상사나 성질 더러운 선배, 여우같은 동료도 제 주변은 다 피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없이 즐겁게 일할 수 있었지요. 운이 여색게 좋다고 다들 부러워할 만큼 만남의 축복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 그 사람이 저희 팀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그저 '나랑은 잘 안 맞는 사람이네', 정도였는데 날이 갈수록 그의 업무 방식이나 태도가 못 마땅하고 짜증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급기야 그 사람의 목소리, 걸음걸이, 눈, 코, 입, 헤어스타일, 앉은 자세,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숨소리, 뭐 하나 빨 것 없이

모든 게 다 불만이고 싫은 게 아닙니까? 하지만 저를 진짜 괴롭고 힘들게 했던 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명색이 크리스천이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운 행동을 해서 미워하는 건데 뭐 어때?' 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람이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못할망정 욕이나 하고 흠이나 잡으려던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미움과 자책 사이에서 마음이 지친 어느 날, 금요일아 예배 때 이시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의 마음속엔 겸손과 교만, 온유와 강박함,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것이죠.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육체가 있는 한 육의 사람을 영원히 쫓아낼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을 이기기 위해 평생 싸우고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날 설교를 듣고 마른 갈래를 쥐어짜듯, 정말 억지로, 억지로, 그 사람

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이 싫습니다. 밉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주세요.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 받게 해주세요." 하기 싫은 숙제를 하는 초등학생처럼 아주 힘겹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끝내고 나니 마음이 좀 기뻐했습니다. 미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구나' 하는 감사 때문에. 여태껏 사랑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 격정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왔어도,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 사람 덕분에 기도의 폭을, 신앙의 분량을 넓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 덕분에 당신의 신앙은 더 성장할지 모릅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Good News

요즘 나뭇잎이 퇴색되어 힘없이 떨어지러 저리 저리 날리는 낙엽을 바라보면, 아무리 감정이 무딘 사람들도라도 인생에 대하여 한번쯤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풍경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실상이 참으로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풀잎 끝에 맺혀 있는 이슬'과 같고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는 표현으로, 우리 인생은 짧거나 길거나 상관없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인생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히9:27).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는 전쟁터를 전전하며 데리고 다니던 신하에게 아침에 침소에서 일어날 때마다 달려와 "왕이시여, 당신은 언제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소서."라고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전쟁에서 오늘날도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 용맹스럽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두 손을 관 밖으로 내어놓고 장례를 치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알렉산더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세계 정복의 야망에 많은 나라를 정복하며 패락

속에서 살아가다가 32세의 젊은 나이에 모기에 물려 그만 말라리아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도 중요하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은 뒤의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에게 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요11:25-26)고 약속하셨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불 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은혜 가운데 참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Edu Section::

예쁜 아이, 윤희야!

얼마 전, 정말 예쁘게 생긴 중학교 1학년생 여자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상담실을 찾아왔다. 상담의 내용인즉, 그림 그리기에 빠져있는 윤희의 학업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보통의 학생들에게처럼, 간단하게 학습법을 알려주었고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다시 찾아온 윤희 어머니로부터 윤희의 아픈 속내를 듣게 되었다. 내용인 즉, 윤희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부반장인 여자아이가 주동이 되어 윤희에 반 학생 전체가 윤희를 왕따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날 방과 후, 나를 찾아 온 아이는 온 몸이 불덩이 같았다. 감기는 아니었고, 아이들의 따돌림에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서 생긴 증상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윤희야, 사람들이 살다보면 한번쯤은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길고 먼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기 마련이야. 어둠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찬란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깐 터널 안이 어두워서 주저앉고 싶어도 조금만 더 참고 너의 취미를 살려서 성공한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말을 진심을 담아 전했다. 한편으로는 윤희를 따돌리는 부반장 아이를 만나고 싶었다. 다른 아이들을 충동질하여 나쁜 마음을 공유하는 부반장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는지 분명 모르고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의 시간으로 남지 않도록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들만의 포레스트로 어머니나 선생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윤희와 깊은 진지한 대화를 계속 나누기로 했다. 인생의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윤희가 반

드시 아픔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

혹시 자녀나 자녀 주위에 윤희처럼 따돌림의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님, 나의 자녀가 부반장 아이처럼 누군가를 따돌리며 괴롭히는 입장에 서 있지는 않은지? 아픔을 당하는 아이나 아픔을 주는 아이나 세상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녀와 벽을 열고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자. 아이들의 시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땅의 많은 윤희와 부반장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잠18:14).

오자유

oh.free@hanmail.net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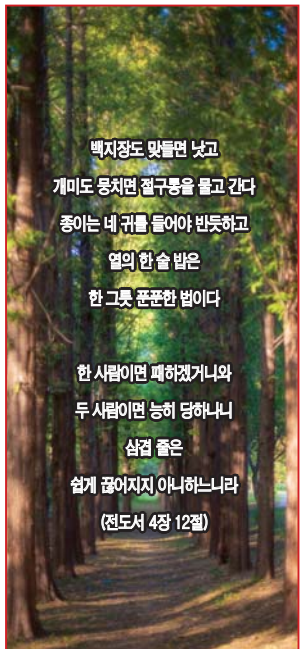
Q: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으레 폐백을 드리는데 술을 따르고 대추를 던지는 것이 미신적인 행위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폐백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폐백(幣帛)이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신부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시댁에 온 신부가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며 청혼에서 준비해 온 음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예식장 폐백실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진행되며 시댁 친척들도 한꺼번에 인사를 받게 됩니다.

폐백 음식에는 의미를 담았는데 대추, 밤, 은행 등은 자손번영과 장수와 부귀를, 육포와 닭은 시부모님을 받들어 공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사를 받은 시부모님이 대추나 밤을 던져주는 것은 본래가 아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폐백절차를 진행하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시댁식구들을 기쁨으로 만나서 인사하는 자리에 불과합니다. 집들이를 갈 때도 불신자들은 세제를 가지고 가면 거품과 같이 집안이 일어나고, 두루마리 화장지는 모든 일이 잘 풀리라는 의미로 들고 가지만, 믿는 자들은 그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을 선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폐백을 생각하거나 기독교식으로 술 대신 차나 음료를 올리고, 대추나 밤을 던지는 대신 시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축복기도로 마무리하는 기독교식 폐백도 편하고 싶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기미도 못치면 절구통을 들고 간다

종이는 네 귀를 들어야 반듯하고

열의 한술 밥은

한 그릇 풍성한 법이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졸은

쉽게 끓여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